



광주 또 찾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2일 광주 남구 양림동 오월 어머니 집 앞에서 두 번째 ‘광주시민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있다. /나눔주기자 mjna@kwangju.co.kr



승리 다지는 국민의당 4·13 총선을 하루 앞둔 12일 국민의당 광주지역 후보들이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손을 맞잡고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국민의당 20석 이상 확보 땀 ‘캐스팅 보트’...정국 주도권

## 총선 이후 호남 정치권 재편 시나리오

선거일을 하루 앞둔 판세를 점검한 결과,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은 20대 총선을 통해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양당 체제로의 재편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는 지난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이다. 지난 2004년 민주당이 열린우리당과 새천년민주당으로 분당되면서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광주에서 열린우리당이 7석 전석을 휩쓸었다. 전남에서는 전체 13석 가운데 열린우리당 7석, 새천년민주당 5석, 무소속 1석으로 양분됐다.

각 당과 정치권이 내놓는 전망을 종합해보면 광주에서는 국민의당 강세가, 전남과 전북에서는 국민의당 우세 속에 혼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관전 포인트는 국민의당의 호남 압승 여부다. 호남의 28개 의석 가운데 최소한 18석 이상을 가져가

## 17대 이어 12년만에 양당 체제

### 더민주 최소 12석 확보 지상과제

### 광주 의석 2석 수성 여부도 주목

야 국민의당이 호남 민심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20~22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더민주의 최소 12석 이상 많게는 14석을 확보, 제1야당의 입지를 지켜나가는 방침이다.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20석 이상을 확보한다면 전체 야권의 지형 변화가 예상된다. 야권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 민심이 더민주보다 국민의당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민의당은 야권에서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물론 추후 정국에서

캐스팅 보트를 확실하게 쥐면서 제3당으로서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선 국면에서 호남 민심을 등에 업은 국민의당은 야권의 정권 창출에 있어 주도권을 쥐는 것으로 전망된다. 더민주가 20대 총선에서 90석 이하를 얻는데 그치며 대패한다면 문재인 전 대표의 정계 은퇴 논란 등이 겹치면서 국민의당이 야권 재편을 주도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호남 의석이 국민의당 전체 의석의 2/3 정도를 차지하게 되면 당내 역학구도를 놓고 대권 가도에 탄력을 받은 안철수 대표 세력과 박지원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한 호남 정치권의 치열한 물 밑 신경

전도 예상된다.

더민주의 호남에서 최소 12~14석 이상을 확보, 제1야당의 명맥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총선에서 100석 이상을 확보한다고 해도 야권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의 참패는 대선 국면에서 주도권을 잃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더민주의 광주에서의 의석 확보에 목을 매고 있는 상황이다. 호남의 핵심인 광주에서 최소 2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호남 참패의 충격은 더 큰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민주의 호남에서 12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다면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당과 치열한 경쟁전을 벌

이면서 호남 민심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권 창출의 의지가 강한 호남 민심을 강력한 대선 주자가 있는 진영에 지지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야권의 대선 후보 단일화를 매개로 야권 대통령 등 야권의 정계 개편을 주도해 간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20석을, 더민주의 호남에서 12석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며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20석 이상을 얻어 압승한다면 대선을 앞두고 호남이 야권의 정권 창출에 있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광주 발전” “정권 교체” “대안 정당”

### 광주·전남 각 정당·후보들 논평·성명 마지막 지지 호소

4·13 총선 전날인 12일 각 정당과 광주·전남지역 후보들은 마지막 지지를 호소했다.

새누리당 광주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광주 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시당은 “13일간의 선거운동기간 내내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던 광주시민과 유권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면서 “이번 선거에서 ‘지역일꾼’으로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일에 가장 먼저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면서 표심을 구애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참여정부 시절 국정에 참여한 호남 인사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여정부의 호남인사출대는 명백한 거짓”이라고 밝혔다.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을 비롯한 참여정부 호남인사 10여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참여정부의 지역출대 및 인사출대가 아직도 지역민을 현혹시키는 현실을 좌시할 수 없었다”면서 더민주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참여정부 인사들의 기자회견은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의 호남 방문으로 지역총선 막판 이슈로 부각한 참여정부와 문 전 대표의 ‘호남출대론’에 대한 지역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민주 전남도당 이기호 위원장과 신정훈 선대위원장도 이날 “더민주가 무능한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겠다”며 마지막 지

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이날 ‘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그동안 뒷발이라 여겼던 전남을 비롯한 호남 선거가 제3당의 출현으로 뜨거운 각축장으로 변모했다”며 “자만하지 말고 겸손과 헌신의 정치를 펼치라는 도민의 명령으로 마음에 새기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당 광주 총선후보들은 이날 “국민의당 승리는 광주의 승리이자 위대한 광주시민의 승리”라며 마지막 지지를 호소했다. 후보들은 이날 오전 당 비례대표 후보들과 함께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의당 창당 70일만에 야권 심장부이자 정권교체 산실인 광주에서 녹색의 희망을 세웠다”면서 “광주만큼은 국민의당 단일대오로 싸우라는 엄중한 명령을 소중히 받들겠다”고 밝혔다.

천정배 공동대표는 “수도권 비례대표 지지율은 국민의당이 더민주를 추월했다”고 주장하고 “이런 확실성은 더민주가 절대 갖지 못했고 국민의당이 정권교체를 이끌 수권대안 정당, 유일한 솔루션이라는 방증”이라고 성원을 요청했다.

정의당 후보들도 마지막 논평과 성명을 통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으며, 앞서 민중연합당은 지난 11일 손술 공동대표와 광주지역 총선 출마자 8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싸울 정당인 민중연합당을 선택해 달라며 마지막 지지를 호소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여야 지도부 수도권 유세로 대장정 마무리

### 김무성 “안보·경제 잘하는 당을”

### 김종인 “야당 없으면 미래 없다”

### 안철수 “변화 원한다면 3번 선택”

4·13 총선 하루 앞으로 다가온 12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지도부는 수도권 접전지역을 집중 공략했다. 승패를 가를 ‘키’는 수도권에 있는 만큼 막판 지지총결집과 부동층 공략을 위해 수도권에서 마지막 유세전에 나선 것이다.

다만,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공식선거운동 개시 후 두 번째로 광주를 찾아 “새누리를 이길 당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새누리당은 이날도 박근혜정부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과반 이상의 지지를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수도권 20개 지역구를 돌며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했다. 그는 유세에서 “선거는 미래 세대가 좋은 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안보와 경제다. 안보와 경제를 든든히 할 수 있는 당은 새누리당”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민주의 정부의 경제 실정을 비판하며 투표로 이를 심판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만큼 제주의 총청을 거쳐 수도권에 이르는 일정을 짰다. 특히 총선 마무리 유세는 지난 달 31일 0시 공식 선거운동 개시 때 찾았던 중국 신평화시장을 선택했다. 그는 이날 유세에서 “불과 석달 전만 하더라도 더민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제가 비대위 대표직을 수락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 야당이 사라질 것 같은 위기감 때문이었다”며 “야당이 없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당은 이날도 거대 양당의 틈새를 파고들며 제3당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안철수 대표도 이날 수도권 공략에 나섰다. 안 대표의 수도권 추가 당선자를 배출하고 정당득표율을 높인다는 목표를 위해 총력전을 폈다.

그는 유세에서 “국회에 1번과 2번 돌밖에 없어 싸움만, 반대만 해도 반사익을 얻어 쉽게 국회의원이 된다”며 “정말 정치가, 정권이, 우리 삶이 바뀌길 원한다면 기호 3번 국민의당을 지지해달라”고 역설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번지 1층  
Tel. (062)234-3222 Fax. (062)234-3141

NAVER 조이투어 검색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http://www.joytour.kr

대표이사 최금환

## 카메라로 떠나는 일본 후쿠오카 벚꽃+온천 여행~!!

**출발일 5/8, 5/14, 5/22, 5/29**

- ▶ 가족과 함께 떠나는 아마가세 고급 별장 온천여행 4일 ₩529,000~
- ▶ [품격] 전통료칸 온천여행 4일 ₩559,000~
- ▶ [고품격] 전통료칸 온천여행 + 후쿠오카 특급 4일 ₩599,000~
- ▶ 부관철회 북규슈 미야지마, 이와쿠니 3박4일 특가 1인당 ₩449,000~

포함 : 선박왕복, 유류세, 부두세, 일정표상의 일정, 입장료, 가이드비, 국내수송비  
불포함 : 여권 및 개인경비, 싱글차지

## 2016년 무안출발 “징기스칸의 나라” 몽골 여행!!

**출발일 7/28, 8/1, 8/6, 8/11**

**울란바토르, 테를지**

3박5일 ₩1,499,000 출발일 : 7/28, 8/11  
4박6일 ₩1,649,000 출발일 : 8/1  
4박6일 ₩1,599,000 출발일 : 8/6

**트래킹**

3박5일 ₩1,499,000 출발일 : 7/28, 8/11  
4박6일 ₩1,599,000 출발일 : 8/1  
4박6일 ₩1,549,000 출발일 : 8/6

\*포함 : 싱글차지, 호텔(2인실)/캐리(4인실기준), 가이드 및 기사 봉사료, 발맞사지 봉사료

**민족의 영산 백두산!!**

**무안공항 - 연길 / 백두산 전세기**

▶ 출발일 7/13 ~ 8/24(수, 토 출발)

- ▶ 북파·용정·도문 4일 [실속] ₩1,140,000~ [품격] ₩1,250,000~
- ▶ 북파·서파(천지2회) 4일 [실속] ₩1,250,000~ [품격] ₩1,340,000~
- ▶ 북파·서파·용정·도문 5일 [실속] ₩1,290,000~ [품격] ₩1,390,000~

불포함 : 싱글차지, 개인경비 및 공항수송비, 가이드/기사팀(9박~\$30, 4박~\$40)

**무안 → 북해도(삿포로) 전세기 취항**

- ▶ 출발일 7/31, 8/4, 8/8, 8/12
- ▶ 노보리베츠, 도야, 사코탄, 오타루, 삿포로 5일 ₩1,599,000~  
\* 삿포로 1일 자유일정
- ▶ 노보리베츠, 도야, 사코탄, 오타루, 삿포로, 후라노, 비에이 5일 ₩1,699,000~  
\* 3대 게요리 포함
- ▶ 노보리베츠, 도야, 오타루, 삿포로, 하코다테, 후라노 5일 ₩1,799,000~  
\* 3대 게요리 포함

불포함 : 개인경비, 기타매너티, 기사&가이드 경비(¥4,000/인)

**무안에서 떠나는 중국여행~!!**

- ▶ 북경, 만리장성 4일 ₩650,000~ ※화요일 출발
- ▶ 북경, 고북수진 4일 ₩750,000~ ※화요일 출발
- ▶ 연산, 태항대협곡 5일 ₩1,150,000~ ※금요일 출발

불포함 : 개인경비, 매너티, 선택관광

**인천에서 떠나는 중국의 숨은보석 산동성!!**

- ▶ 산동성(치박, 제산, 제남) 4일 ₩699,000~  
특전 : 광주-인천 왕복 승수 포함!!

불포함 : 개인경비,매너티, 선택관광, 광주-인천 이동 중 식사

- ▶ [항공] 광주-제주도 3일 ₩299,000~  
불포함 : 기사&가이드팀(₩10,000), 현지직불관광, 석식2회
- ▶ [선박] 목포-제주도 3일 ₩189,000~  
불포함 : 기사&가이드팀(₩10,000), 현지직불관광, 석식2회
- ▶ 광주-울릉도 3일 ₩345,000~
- ▶ 목포-홍도, 흑산도 2일 ₩155,000~

**직원 및 일본어 가이드 모집**

- 모집인원 0명
- 외국어구사 능력자 우대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운전면허 소지자
- 홈페이지 관리 유경험자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2003-1호] 이렇다한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 공통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해외상품보험,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열버스/전지역 ● 산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 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계약서 체결 ●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 경비(항공료, 기차/기타교통사, 선택관광, 각종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 상품에 따라 다름